

일주문



불교정보화협의회 창립법회
현성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은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불교정보화협의회'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대구불교방송 6월 행사
성대 대구불교방송 사장은 방송국 개국 6주년 기념 및 축하행사를 11일 오후 3시 진각문화회관 7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고정인의 날 대통령 표창
성운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은 10월 28일 제1회 고정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사미계 수계법회 봉행
해정 일승종 총무원장은 10월 26일 구리시 삼봉사 금강계단에서 사미계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문운사 제14대 주지 취임
홍륜 前 문운사대학 학감 스님은 5일 제14대 청도 문운사 주지에 취임했다. 전 주지 혜은 스님은 문운선원 선원장을 맡게 된다.



노천 지장보살상 봉안
영은 경주 복원사 주지는 10월 27일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천 지장보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14일 성보사 이전법회
영인 성남 성보사 주지는 14일 오전 10시 대승종 총무원장 인오스님을 초청하여 성보사 이전 개산 법회를 봉행했다.



'부부문제 세미나' 강연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7일 조계사불교대학 강의실에서 '부부문제 세미나' 주제강연회를 갖는다.



제7회 명원치문화상 수상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은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장에서 수여하는 제7회 명원치문화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화부 장관 표창패 받아
김운세 월간 <신도불이> 발행인은 잡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일 잡지의 날을 맞아 문화부장관 표창패를 받았다.

3일, 성북승무사사무소 법무회원의 부인들로 구성된 승만부인회 회원들은 9월 가입한 회원의 가정방문을 했다. 집들이를 겸한 이날 방문의 목적은 신행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아 어색함을 빨리 떨치는 것. 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신행경험을 들려주고 나이 고하를 떠나 오랜 친구처럼 즐겁게 대화했다. 신입회원의 가정방문을 돕고 있는 승만부인회의 신입회원 관리 비결이다. 법우회는 조그만 일에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자상함으로 신입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 월도정불교단체협의회 연행행사 때에는 신입회원들이 반드시 참가하도록 1대1로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신입회원들에게 소속감과 불심을 심어 주기 위한 직장단체들의 '관리 비결'은 다양하다. 사찰예절과 순례를 실시하는가 하면 불자소양교육, 불서 선물 등 물량공세를 펼치기도 한다.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신입회원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어색함을 떨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이다.

전남도청 공무원봉사회는 신입회원의 신심을 키워주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금요일 불교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각 지점에 흩어져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얼굴을 익히는 일이 쉽지 않은 우리은행 봉사회는 한달에 한번 열리는 법회 때 법우에 대한 소개와 환영가를 부르는 가운데 지도법사가 합장주를 걸어주는 약식 환영회를 열고 있다. 매년 한차례 열고 있는 수계식도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자리다. 현동관 부회장은 "신입회원 스스로 불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정신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전본사 반야회는 신입회원들의 신행지도를 맡는 임원들 다음으로 철저한 임원교육을 시킨다. 이순형 구도부장 주관으로 9~10월에는 서울 강남봉은사에서 3배하는 법, 불자예절, 사찰에 갖는 의미, 불교상식 등 초보회원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 참가했던 6명의 신입회원들은 10월 법회에 참석, '법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도 의식이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진실한 불자로 살아가겠다"고 서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신입회원 이렇게 도와요

친구 대하듯 신행경험 등 나눠 성북승무사사무소

기본교육...차근차근 자리잡게 전남도청봉사회

합장주 선물·자긍심 갖게 배려 우리은행 봉사회

전담 관리임원 두고 교육 철저 한전본사 반야회

인원은 60여명으로, 호응도가 높다. 감사진은 광주 향림사의 도움을 받아 구성했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불자회에 새로 가입한 회원들도 와서 강의를 듣고 있다. 전남도청봉사회는 신입 회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모은 책과 입문서를 주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

군 예비역 불자회 8일 창립

회장 이석복 장군, 군불교 총신도회와 연계 활동

전역한 직업군인들이 정기적인 법회를 열어 신행활동을 하고 현역 군인들을 지원할 예비역 불자회가 된다.

예비역 불자회 임원진은 회장에 이석복 장군(전 연합사 부참모장), 부회장에 조남진 장군(전 군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총무 서진수 박사(재향군인회 사업부장), 고문

에 윤종화 장군(전 군수차관보)·신말업 장군(전 3군사령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육·해·공군 하사관부터 장군까지 회원으로 하는 예비역 불자회는 전국 지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전 군승단장인 자랑스님을 지도법사로 한다. 또한 매월 정기법

회 개최, 연말 전방부대 위문 방문 등 군불교총신도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포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석복 회장은 "불자들이 현역 시절에도 적극적인 신행 및 포교활동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며 "예비역 불자회 창립을 계기로 예비역 불자들의 신행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현역 불자들의 활동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립법회는 8일 오후 6시 30분 국방부 법당인 호국 원광사에서 열리며, 불자회 사무실은 호국 원광사 1층에 마련된다.

남동우 기자

경남공무원불자련

보리암서 창립1돌 법회

경남공무원불자련연합회(회장 공창석)는 9~10일 남해 보리암에서 창립 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기념법회와 신행간담회, 108예참기도, 새벽예불, 1보1배, 금산 산행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법회에는 전 쌍계사 주지 통광스님을 비롯해 경남도청 불자회와 20개 시·군 공무원불자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창립한 경남공무원불련은 1년 동안 창원, 마산, 김해, 함안, 남해, 합천 등 9개 시·군청 불자회 창립을 주도, 경남지역 모든 시·군에 공무원불자회를 결성했다. 또 1천여 경남공무원불자들의 단결과 교류를 이끌었으며, 공무원불자회 결성바람을 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단초가 됐다.



전국병원불자련연합회와서울병원불자회가 창립 2주년과 10주년을 맞아 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초청법회를 열었다.

병불련 2돌·서울병원불자회 10돌 법회

전국병원불자련연합회(회장 김주희)가 창립 2주년을 맞아 국립서울병원 대강당에서 2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10주년을 맞은 서울병원 불자회와 함께 열린 이날 법

회에는 병원불자련 연합회 소속 국립의료원,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경찰병원, 한일병원, 경희의료원, 보훈병원 등 10개 병원 지도법사단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5개 병원 불자회가 참여해 99년 10월 창립한 병원불자련연합회는 2년만에 19개 병원이 가입하는 전국조직으로 성장했으며, 매년 두차례 농촌·양로시설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자비인술을 펼쳐 불행종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불자회는요

현대석유화학 현물회

현물회는 충남 서산 대산단지내 LG화학, 사이스 대산코리아, 현대중공업 복합화력, 현대석유화학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원래 현대석유화학 한 회사였는데, IMF 사태로 인해 분사와 매각을 거듭하면서 회원들도 소속을 달리하게 되었지요. 비록 회사는 바뀌었지만, 회원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 한 울타리내에서 함께 불심을 닦고 있습니다. 현물회라는 이름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지요. 조흥은행 직원 2명도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되었습니다. 지난 9월 가족체육대회 때에는 비가 내리던 와중에도 아이들과 회원들의 부인들이 어찌나 열심히 축구경기를 하면서 참가했던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최근에는 좀 더 성숙한 모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들의 믿음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요. 그래서 친목적인 성격이 강한 현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려, 불우 이웃,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가



현대석유화학 현물회원들이 서산 해일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법회·성지순례·체육대회 회원가족 함께 믿음 깊고 넓게 하기위한 실천행에 주력

1995년 8월에 창립했으니까 현물회는 이제 7살이 되었네요. 빠르게 변하는 회사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단결된 모습으로 법회와 모임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회원이 69명으로 늘어난 것도 매주 법회를 여는 등 창립 회원들의 꾸준한 신행과 포교활동으로 얻은 결과지요. 외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신행활동이나 회원들간의 단합,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물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법회는 물론 성지순례,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에 가족이 참여해 친목을 다지고 있는 점입니다. 가족이 직장법회에 가담함으로써 직장내 불교활동으로 인한 오해도 줄일 수 있고, 분위기도 더욱 활기를 띠게

족에서 이웃으로' 신행의 범위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실천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하니까요.

다음에는 회원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큰스님 초청법회를 준비하고 있지요. 부처님 4대명절에는 1080배를 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큰스님 초청법회는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비용이나 회원수가 많지 않아서인지 성사되지 않아 회원들이 많이 아쉬워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은 장소 마련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큰스님 초청법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물회 총무(공무원관리팀)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021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021722-4162

동산불교 창립 20주년 기념

불교교육의 보dana는 발전을 위하여 한국 재가불교의 외길을 걸은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이 동산창립 20주년을 맞아 교계사부대중을 초청하여 그 뜻을 기리고, 향후 재가불교운동의 비전을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하오니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기념 행사

- 일 시- 2002년 11월 16일(토) 오후6시
장 소-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중구 소공동)
내 용- 1부:20주년 기념행사
2부:다과 및 저녁공양
3부:축하연
문의- 02)732-1206~8

불교교육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범주무진장 합장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총 가시오가피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귀중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